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2호[2009. 12] : 1~35

동굴기우제에 나타나는 메소아메리카 자연관

김 세 건*
(Kim, Se-Gun)

<Abstract>

La Ofrenda a las Cuevas y la Cosmovisión Mesoamericana

Este artículo se trata de la cosmovisión mesoamericana sobre la naturaleza, especialmente, enfocado en la ofrenda a las cuevas en un pueblo campesino, llamado San Andrés de la Cal, Tepzotlán, Morelos.

La ofrenda a las cuevas para pedir 'un buen tiempo' es una tradición mesoamericana que tiene sus antecedentes en la época prehispánica. A principios de mayo los campesinos de San Andrés quienes generalmente cultivan los maices y frijoles practican la ofrenda a las cuevas con el fin de asegurar una lluvia suficiente y una cosecha abundante en el ciclo agrícola. En la cosmovisión mesoamericana, las cuevas han sido consideradas como los portales de donde surgen las fuerzas del interior de la tierra. En el interior de la tierra se verifica el acto trascendental de generación de la vida vegetal, y que la cueva que simboliza el inframundo es un generador de energía cósmica.

*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E-mail: amorsg@kangwon.ac.kr

[Key Words: La Ofrenda a las Cuevas/ La Cosmovisión Mesoamericana/ Un Generador de Energía Cósmica/ Un Buen Tiempo]
[주제어: 동굴기우제/ 메소아메리카 세계관/ 우주에너지 창조자/ '좋은 시절']

Ⅰ. 들어가며

자연, 즉 우리와 매일 함께 하는 자연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한 자연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정확히 말하면 인간화된 것이다(Figueroa 1996: 17). 자연에 대한 인간들의 창조적 행위는, "그 자체가 다양하고 다른 현실의 상징적 의미의 배치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결정체인 한, 지역의 독특한 문화에 의거한다(Sahlins, 1990: 87)." 그리고 이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계열적 흐름 속에서 지속과 단절을 경험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멕시코의 한 농촌 산 안드레스 데 라 깔(San Andrés de la Cal, 이하 산 안드레스)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 마뜰라신까(*matlatzinca*)라는 언어를 통해 자연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창조하였다(Maldonado, 1990). 이 사람들은 13세기 '신화의 땅' 아스뜰란-치꼬모스똑(*Aztlán-Chicomóztoc*)에서 신이 계시한 '약속의 땅'을 찾아 남하하였던 나우아뜰(*nahuatl*)어를 말하는 종족 가운데 하나인 뜰라우이까(*tlahuica*) 종족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다. 뜰라우이까 종족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창조하였고, 이 과정에서 마뜰라신까 문화는 단절과 변형을 경험하며 뜰라우이까, 넓은 의미의 아스떼까 문화에

녹아들어갔다. 아스떼까 세계 또한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어오면서 크게 바뀌었다.

스페인의 정복 과정에서 원주민의 모든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은 변하였다. 정복자와 함께 들어온 가톨릭 중심의 서구 문화는 산 안드레스 나아가 멕시코 사회·문화의 길잡이가 되었다. 특히 스페인 정복자에 의해서 강요된 가톨릭 종교 아래에서 아스떼까 문화는 부정당하고 파괴되었다. 물론 이는 아스떼까 문화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톨릭 문화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며 우리가 멕시코 농촌의 전통문화라고 일컫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다.

식민지 상황에서도 원주민들이 자신들 문화의 핵심 요소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주요 먹거리인 옥수수에서 찾을 수 있다. 옥수수에 체화되어 있는 아스떼까 문화, 폭넓게 말하면 메소아메리카 문화는 옥수수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가톨릭과 결합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식민지시기에 멕시코 농촌의 문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흐름, 이른바 메소아메리카 문화와 가톨릭 문화로부터 형성되었다(López 1996: 476). 오늘날 멕시코 농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문화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멕시코 농촌 문화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메소아메리카 문화의 측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산 안드레스는 보통 원주민 마을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산 안드레스에 터를 잡고 살아 온 사람들도 메소아메리카 문화와 가톨릭 문화의 혼합의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예외는 아니었다. 한마디로 산 안드레스는 멕시코 대부분의 마을처럼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혼합의 산물로 전통 원주민 마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산 안드레스를 원주민 마을로 간주하고 그곳에서 원주민 문화를 찾는 것은

여전히 옥수수 생계농업에 바탕을 둔 메소아메리카 문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 안드레스 문화의 중심에는 가톨릭이 자리 잡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메소아메리카 문화, 특히 자연에 대한 인식체계는 끊임없이 변형·유지되며 재생산되었다. 이 문화는 기본적으로 산 안드레스 사람들이 해마다 벌이는 옥수수 생산의례에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동굴기우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굴기우제의 과정과 제물의 의미를 통해 동굴에 깃들여 있는 메소아메리카 자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마을에 거주하면서 행했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현지참여연구와 한국에 귀국한 뒤 1~2년 간격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얻은 자료에 바탕을 두었다. 특히 1996년, 1997년과 2007년 동굴기우제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Ⅱ. 연구지 개관

산 안드레스는 모렐로스 주의 북부지역에 있는 떼뽀스뜰란 무니시삐오(municipio) 에 속해 있는 8개 마을 가운데 하나이다. 산 안드레스 인구수는 2007년 현재 1,198명(남자 558명, 여성 640명)으로, 떼뽀스뜰란 무니시삐오의 마을들 사이에서 중간 크기이다. 떼뽀스뜰란 무니시삐오는 멕시코시티의 남부지역과 접해 있는데, 행정중심지인 떼뽀스뜰란 읍은 멕시코시티로부터 약 74km 정도 떨어져 있다. 1940년대부터 이 지역은 멕시코시티 주변에서 손꼽히는 휴양지 가운데 하나이다. 3천 미터가 넘는 화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떼뽀스뜰란은 매우 온화하고 쾌적한 기후와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어 외부인들의 별장들이 많이 있다. 오늘날 떼뽀스뜰란이 휴양·관광지로 명성을 날리면서 주말이나 부활절 등 축제시기에는 읍내 등지는 방문객으로 가득 차고, 관광산업이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떼뽀스뜰란의 농업 조건은 토지가 적고 토질이 좋지 않아 열악하다. 무엇보다도 농사의 필수요소인 물은 5월경에 시작하여 10월경에 끝나는 우기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화산지대로 침투성이 강하여 관개시설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모렐로스 북부지역에 내려 곧바로 침투하였다가 복류하는 물과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사탕수수, 벼 등의 상업농이 발달한 남부지역과는 달리, 떼뽀스뜰란 등의 북부지역은 옥수수·콩·호박의 전통적인 생계농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열악한 농업 환경에서 떼뽀스뜰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농업 외의 경제활동에 많이 종사하였다. 특히 식민지시기부터 1910년 멕시코혁명 전까지 떼뽀스뜰란 사람들은 야우떼뻭(Yautepec)과 같은 인근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탕수수 대농장(hacienda)의 주요 노동력 공급원이었다. 산 안드레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을 이름에서 보이듯이 산 안드레스의 주민들은 건기 동안에 설탕 정제, 닉스따말(nixtamal, 옥수수 반죽을 위해 삶은 옥수수) 그리고 건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석회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사탕수수 대농장에서 일일 농업노동자(peón)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 그렇지만 산 안드레스 주민들의 삶도 옥수수 생계 농업의 영세성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다 1960~1970년대에 토마토(jitomate)의 상업적 재배가 활성화되고, 인근 도시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 안드레스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때를 구가하였다. 주민들은 1970년대는 다시 돌아가고픈 향수를 자아낼 정도로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높은 투자비용, 불안한 시장가격, 토질의 저하에 따른 낮은 생산성

으로 인하여 토마토 재배는 쇠퇴하고, 거기에 국내 경제위기에 따른 인근 공업단지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이에 산 안드레스의 주민들은 미국·캐나다로의 계절적 농업이민과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을 하거나, 옥수수·콩 등의 기본 생계 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그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김세건 2000: 120-121 참조). 특히 2007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368명 가운데 274명(74.4%)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Nolasco 2008: 20)에서 잘 드러나듯이, 농업은 여전히 산 안드레스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주민들의 삶과 문화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옥수수 생산력과 동굴기우제

1. 생산의례와 동굴기우제

농업은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에 상응하는 적응과 실패의 변증법적 운동의 산물로, 단지 하나의 생계기술이라기보다는 삶과 문화의 한 유형이다. 그래서 농업에서 자원의 이용과 통제는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인식, 경험, 신화, 세계관의 다양한 개념들의 총체를 내포한다(Del Amo 1988: 7). 산 안드레스에서 시간은 항상 모든 인식체계와 활동의 안내자인 옥수수 생산주기에 바탕을 둔 농사력으로 표시되었고, 이 농사력은 특정한 의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농민들의 생산 활동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산 안드레스에서 행해지는 옥수수 성장주기와 생산의례[1]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1) 옥수수 생산주기와 생산의례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세건(2000:122-137)을 참조하였다.

수 있다.

표 1> 옥수수 성장주기와 생산의례

	월	옥수수 성장주기[2]	생산의례
건 기 ↓	4월 5월	**경작지 준비**	십자가의 날(5월 3일) 이스까떼빽 순례(5월 8일이 있는 주 토요일) 동굴제의(5월 세 번째 금요일) 산 이시드로 축일(씨앗 축복, 5월 15일)**
↑ 우 기 ↓	6월	**파종:**	파종 때 축원**
	7월	**성장:** 첫 흙 북돋아주기와 제초* (1° beneficio, 파종 후 20일)	
	8월	두 번째 흙 북돋아주기와 제초* (2° beneficio, 파종 후 35~40일)	
		세 번째 흙 북돋아주기와 제초** (cajón, 파종 후 50~60일)	쟁기씻이(acabada)**
		힐로떼를 맺기 시작	
	9월	엘로떼(파종 후 90일)로 성장	빼리꼰 십자가와 엘로떼 날(9월 28일)
	10월 11월	**옥수수 성숙·건조**	물의 날(10월 18일)
			사자의 날(10월 28일에서 11월 2일)
↑ 건 기	12월 1월 2월 3월	마소르까 추수 옥수수 껍질 채취와 탈곡 그리고 씨앗 고르기*	씨앗의 축복 – 깐델라리아 축일(2월2일) – 성주간(3~4월)

* 사라져가고 있는 일 또는 의례 ** 거의 사라진 일 또는 의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산 안드레스를 비롯한 멕시코 농촌에서 자연 현상, 특히 기후 그리고 농업, 인식체계 사이에는 밀접한

2) 옥수수(maíz)는 성장주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옥수수는 힐로떼(jilote o *xilotl*), 여린 알이 꽉 차 있는 상태의 옥수수는 엘로떼(elote o *elotl*), 엘로떼를 지나 알곡이 마른 옥수수는 마소르까(mazorca o *centli*)라고 부른다.

관계가 있다. 건기와 우기의 분리는 옥수수 경작과 농업의례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우기의 차고 습한 존재와 건기의 덥고 건조한 존재로 대별되는 세상은 이 상반된 두 힘의 끊임없는 순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두 힘의 순환주기는 옥수수 경작주기, 이른바 경작지 준비, 파종 및 흙 북돋아주기와 제초작업 등의 생산 활동 기간, 추수와 저장의 휴지 기간 등으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나아가 두 주기는 더위와 추위의 세계가 순환하는 우주 질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두 힘의 순환을 특징짓는 두 의례가 있는데, 바로 5월 3일 십자가의 날(Día de Santa Cruz)과 11월 1일 사자(死者)의 날(Día de los Muertos)이다. 로뻬스(López 1994: 108, 120)는 십자가의 날은 우기의 시작이 아니라 건기의 끝이고, 사자의 날은 건기의 시작이 아니라 우기의 끝이라고 하였다. 즉 십자가의 날 의례에서 건조는 더운 기운의 예찬과 함께 끝이 나고, 사자의 날 의례에서 비는 모든 찬 기운이 모이면서 끝이 난다. 이처럼 두 의례는 건기와 우기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며, 두 의례를 중심으로 다른 의례들이 많이 행해진다. 특히 농민들에게 있어서 주요 관심사는 비, 즉 우기의 시작이다. 따라서 십자가의 날 의례를 시작으로 비와 관련된 의례, 이른바 이스까떼뻭 순례(Peregrinación a Ixcatepec)와 동굴기우제(ofrenda a las cuevas)라는 두 의례가 행해진다. 이스까떼뻭 순례는 가톨릭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스까떼뻭은 떼뽀스뜰란 무니시삐오에 속해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의 성당에는 300여 년 전에 떼뽀스뜰란 지역에 창궐한 전염병을 퇴치한 기적의 예수상이 모셔져있다. 산 안드레스 사람들은 5월 초에 이곳에 산 안드레스 상(像)을 모시고 순례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우기(雨期)가 시작되는 시기와 내리는 비의 양을 정하고자 주변 마을의 수호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문한다고 한다. 이스까떼뻭 순례와 달리 동굴기우제는 메소아메리카 전통의례이다.

2. 동굴 기우제 과정[3)]

동굴 기우제는 메소아메리카의 많은 농촌 마을들에서 식민지 이전부터 행해져 온 전통의례이며, 산 안드레스의 기우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1580년 구띠에레스 데 리에바나(Gutiérrez de Liébana)는 그의 책『떼뽀스뜰란 보고서』(Relación de Tepuztlán)에서 "산 안드레스에는 석회석 사이에 한 동굴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은 폭 가라앉아 있었는데 어디로 이어지는 줄을 몰랐고, 예전에 그 곳에 들어가서 장식하였다고 말하였다"(Kim 1999: 259 재인용)라고 동굴의례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구띠에레스 데 리에바나가 묘사한 동굴은 꾸이뜰라삘꼬(*Cuitlapilco*)로 추정되는데,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호수와 석회산이 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동굴은 동굴기우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굴이었으나 토사가 쌓이면서 동굴입구가 막혀버렸다. 주민들은 1910년 혁명을 전후로 이곳에서 기우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세월 따라 동굴은 토사에 묻히고 사라졌지만, 동굴기우제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5월이 되면 산 안드레스의 농민들은 '좋은 시절'을 기원하며 마을 주변의 산야에 위치한 신성한 동굴과 샘 등에 기우제를 지낸다.

1) 제물 준비과정

4월 중순이 되면, 우에우엔뜰레(*huehuentle*, 기우제를 지내는 제사장)는 기우제를 준비하고자 마을의 연장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주 제사장이 혁명 이후부터 여성이었고, 또한 대개 남성이 일하러 가고 없는 집을 방문하여 기금

3) 동굴기우제의 제물 준비과정과 제의과정은 김세건(2000: 127-131)을 보완·수정하였다.

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먼저 의례일시, 기금 모집 등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예전에 기우제는 5월 첫째 금요일에 행해졌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셋째 금요일에 행한다. 사람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점차 우기의 시작이 늦어지면서 기우제의 일시도 늦추어졌다고 한다. 이는 '십자가 날', '이스까떼삑 순례' 등과 맞물려서 일시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일시에 위원회 사람들이 구역을 나누어 집집을 돌면서 기금을 모집한다. 보통 가구당 얼마씩으로 정한다. 예로 1997・98년에 기부금은 가구당 15뻬소였고, 2007년에는 30뻬소였다. 그러나 기부금 찬조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찬조 형태도 화폐로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전에는 돈 대신 옥수수, 따말용 옥수수 껍질, 그 외 의례에 필요한 폭죽 등의 제의 용품을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오늘날도 많은 가구들이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한다. 정해진 금액의 일부만을 내는 사람, 그리고 기부를 아예 하지 않는 가구도 꽤 된다. 일반적으로 몰몬 교인들은 기부하지 않는데, 이는 몰몬 교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말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웃 마을 산따 까따리나, 떼뽀스뜰란 읍내에서도 기금 모집이 이루어진다. 특히 산따 까따리나는 어린아이도 나우아뜰(*nahuatl*)어를 말할 정도로 "전통이 잘 살아 있으며, 가장 전투적이고 텃새가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곳에 방문하게 되면 [폭행당하는 것 등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쉽게 듣게 된다. 그럼에도 산 안드레스 사람들은 기우제 기금을 마련하고자 산따 까따리나의 약 천 여 가구를 각각 방문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오랜 풍습처럼 자연스럽게 기부를 한다. 그냥 서로 이웃일 뿐이다. 기부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들은 산 안드레스 마을과는 달리 돈보다 옥수수 기부를 많이 한다. 산 안드레스와 같은 분지에 위치

한 산따 까따리나는 동일한 인식체계를 공유하지만 기우제를 지낼만한 동굴이 없다. 따라서 산따 까따리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산 안드레스 동굴 기우제를 통해 '좋은 시절'을 기원하였고, 예전에 일부 사람들은 의례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현지연구를 한 3년 동안 기부는 하였지만 의례에 직접 참여한 산따 까따리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떼뽀스뜰란 사람들도 기부를 통해 의례에 참여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시장의 상인들이고 그들이 취급하는 폭죽, 종이 등을 기부한다. 한 상인은 수 십 년 동안 화약을 기부해왔다고 하였다.

기우제 전날 제의용품을 준비한다. 오전에 제사장들이 꾸에르나바까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온다. 예전에는 그릇, 인형 등 제의용품 대부분을 마을에서 직접 만들었지만, 1970년대부터 거의 모든 제의용품을 시장에서 구입한다. 예로 도기 인형대신 플라스틱 인형을 사용한다. 물건을 살 때에 특별한 금기는 없다고 한다. 오후 무렵 마을 사무소에 제사장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주 제사장 도냐 호비따의 지휘 아래 제의용품을 준비한다. 마을사무소의 마당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아우아께(*ahuaque*, 비를 가져오는 우기의 신)[4]를 위하여 소금기 없는 작은 따말, 파란 옥수수로 만든 에스끼떼(*esquite*, 일종의 비스킷), 소금기 없는 몰레 베르데(mole verde), 별・달・태양 모양의 뜰락스깔(*tlaxcal*, 일종의 비스킷) 등의 제의 음식을 만든다. 신을 위한 제물에는 소금을 넣지 않는다. 그리고 마을사무소 건물 내에서는 주 제사장인 도냐 호비따(Doña Jovita)의 지시에 따라 10여 명의 사람이 새 돗자리에 앉아서 남·

4) 레드필드(Redfield 1930: 121-122)에 따르면, 아우아께는 천둥번개를 친다. 사람이 줍는 구슬(stone bead)과 나선형물레(spindle whorl)는 아우아께들이 하늘에서 보내준 것이다. 아우아께들은 금을 매우 좋아한다. 비가 시작되면 종종 아우아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자들은 아우아께들이 그녀의 금 귀걸이를 빼앗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또한 아우아께가 보석을 빼앗아가고자 자신들을 쳐서 죽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녀 인형, 천사, 개구리, 거북이, 뱀, 군인, 담배, 과일, 화약가루 등의 제의용품을 천연색 실과 중국 종이(papel china)로 싼다. 이는 아우아께들이 천연색과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비와 관련 있는 무지개 색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멕시코 상징색인 녹색, 하얀색, 빨간색 등 국기의 삼색을 주로 사용한다. 멕시코 국민주의가 전통의례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제의용품의 준비가 다 되면 제사장은 동굴별로 나누어 새 바구니(*chiquihuite*)에 제의용품을 담는다. 그런 후 사람들은 돌아가고, 그날 마을 순찰 당번인 젊은이들이 남아 밤을 세워가며 제의용품을 지킨다.

2) 기우제 지내기

기우제의 아침 7시경에 세 명의 우에우엔뜰레, 바구니를 운반하는 사람과 단순 참가자들이 마을사무소에 모여 제물 바구니를 들고 산 안드레스 교회로 향한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레산데로(rezandero, 신부가 없을 때 기도회를 이끄는 사람)의 주도 아래 간단한 기도만을 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떼뽀스뜰란 교구 신부가 직접 미사를 한다. 신부는 우에우엔뜰레, 바구니를 운반하는 사람과 바구니를 성수로 축복한다. 다음 바구니를 기우제 장소로 가져간다. 동굴기우제는 본래 두 방향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부터 새로운 제사장으로 펠리뻬(Felipe Mendoza)와 살바도르(Salvador Mendoza)가 참여하면서 세 방향으로 나뉘었고, 의례 장소도 증가하였다. 북쪽 방향은 전과 마찬가지로 우에우엔따나(*Huehuentana*, 오래된 모자), 아손쫌빤뜰라(*Azontzompantla*, 물이 머리카락처럼 흐르는 곳), 소치뗑꼬(*Xochitenco*, 꽃가), 그리고 소치오깐(*Xochiocan*, 꽃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남동쪽은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떼뻬뽈꼬(*Tepepolco*, 구름이 뭉쳐 있는 장소), 아이오깔띠빡

(*Aiocaltipac*, 호박 집 위) 그리고 떼뻬꿀리구이안(*Tepeculliguian*, 산이 설교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오스또끼아우악(*Oztoquiahuac*, 동굴 밖), 시우일리뗌빠(*Xihuilitempa*, 터어키 옥의 반점(hierbas)이 있는 곳. [1997년에 새로 추가됨]), 멕스꼬몰라빠(*Mexcomolapa*, 물위에 펼쳐진 구름), 그리고 아뜰리하깐(*Atlijacan*, 물이 있는 좋은 장소, [현재 마을 상수원이며, 1997년에 새로 추가됨])이다.

참가자, 특히 동굴제의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은 떼뻬뽈꼬 방향으로 가는 그룹을 따라나서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떼뻬뽈꼬 동굴이 평상시에는 쉽게 갈 수 없는 마을의 최남단에 위치한 꼬로나(Corona)산 정상 부근에 있고, 게다가 이 방향의 제사장이 약 40년 동안 기우제를 지내온 도냐 호비따이기 때문이다. 도냐 호비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력이 약해져 산악지대로 길이 험한 떼베뽈꼬 방향으로 가는 대신에 대부분이 평지인 아뜰리하깐 방향을 담당한다. 떼뻬뽈꼬 방향은 펠리뻬가 담당하였다. 펠리뻬는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로 수호성인과 산 살바도르 축제 때에는 그와 함께 전통문화 활동을 하는 친구들, 이른바 꼰체로(conchero)들을 불러와 교회에서 꽃으로 태양 십자가를 장식하는 의례를 하고 춤을 춘다. 또 다른 제사장 살바도르는 펠리뻬의 형인데, 그가 캐나다에 계절이민을 가면서부터 기우제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07년 동굴기우제는 살바도르를 대신하여 20대 초반의 아가씨인 아메리까(América)가 제사장으로 처음 참여하였다.

제의가 이루어지는 동굴들은 대체로 두·세 명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제사장과 보조원이 들어간 후,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밖은 한참동안 소란스럽다. 동굴 안에 도착하여 자리를 잡으면 제사장은 비의 신 아우아께를 부르는 피리를 두 번 불면서 제의를 시작

한다. 제의를 시작할 때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나쁜 바람 또는 신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담배를 한 모금씩 빤다. 한마디로 신성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배어난다. 나아가 아우아께와 같은 신들은 선과 악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스떼까 전통 인식체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른바 아우아께는 좋은 바람뿐만 아니라 나쁜 바람도 가져온다. 제사장은 피리를 두 번 분 다음 준비해간 제물들을 정성스레 진열한다. 진열의 순서가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제사장을 마주보게끔 인형을 제단의 제일 앞부분에 놓고, 그 인형 앞에 다른 제물들을 진열한다. 그리고 제사장의 기도가 있다.

도냐 호비따가 동굴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 (1996년)

기도는 제사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제사장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우제를 맡아 온 도냐 호비따는 나우어뜰어와 스페인어를 혼용하여 기도를 하였다. 펠리페와 아메리카는 순수 스페인어로 기도를 하였다. 모든 제사장들의 기도의 대상은 뜰랄록(*tlaloc*) 등 아스떼까 전통의 신보다는 가톨릭의 예수, 성모 마리아, 성인이다. 특히 젊은 제사장들의 기도문

에서는 전통 신의 이름을 거의 들을 수 없다. 세월 따라 동굴기우제도 많은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다. 2007년 동굴기우제 때 필자는 새로 참여한 제사장 아메리까가 어떻게 제의를 하는 가를 보고자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우에우엔따나 방향을 담당하였다. 그녀의 아버지 돈 꼬꼬(Don Coco)가 한 때 제사장을 하였는데, 이런 이유로 그녀는 젊은 나이에 거리낌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단순 참여자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녀는 우에우엔따나 바위를 찾지 못해 1시간여를 헤맸고, 결국 항상 가장 먼저 끝나는 이 방향의 기우제가 가장 늦게 끝났다. 무엇보다 기도를 하는 데에서도 나름대로 기도문을 만들지 못해 교회의 주기도문(主祈禱文)으로 대신하였다.

제의 장소마다 폭죽소리가 울려 퍼지고, 정오 무렵에 제의는 마무리된다. 제의가 먼저 끝난 팀들은 성당으로 돌아와서 다른 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다 모이면 마을사무소로 돌아간다. 이 때 참가자들은 사무소 입구에서 꼬빨(copal) 향로의 연기로 몸을 씻는데, 이는 동굴과 들판에 있는 '나쁜 바람'과 접촉하였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제의동안 마을의 아주머니들이 준비한 따말과 몰레 베르데로 식사를 한다. 사람들 식사를 위한 따말과 몰레 베르데에는 소금이 들어간다. 식사가 끝난 뒤 제사장의 간단한 인사 및 결산보고가 있고 기우제는 끝난다. 이제 우주 에너지 창조자의 대답만이 남았다.

Ⅳ. 동굴기우제 제물의 의미와 특성

지난 40여년 동안 기우제를 주관해 온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인 도냐 호비따(Doña Jovita)가 1996년 5월 17일 떼뻬뿔꼬 동굴에서 행한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세계관을 살펴보자.

(두 번의 피리소리)

성스러운 일꾼들이여(Señores Trabajadores)!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저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통을 존중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여, 저는 당신에게 좋은 시절을 요청하고자 왔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아들[소년 인형]이 있습니다. 아멘.

[제물 배치] 여기에 소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녀가, 당신을 위해 하녀처럼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하고자하는 일을 시키십시오. 성스러운 일꾼이여! 일을 하고 당신들을 돕도록 이 소녀에게 명령하소서. 성스러운 일꾼들이여, 성스러운 탁자로 다가오소서. 성스러운 일꾼들을 위해 일을 하고자 여기에 거북이와 화약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일할 것입니다. 이들을 쉬라고 여기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군인들은 오늘은 쉬고, 다음부터는 이 모든 시절[농사철]동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들은 조용한(calmado) 천둥을 위한 것입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놓는다)

(두 번의 피리소리)

성스러운 일꾼이여, 바람 신이여, 시간과 계절의 성스러운 일꾼이여: 우리는 좋게 비가 내리길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바람, 우박이 없는 비를 주시길 원하고, 요청하며, 진심으로 기원하며, 탄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산띠시모 사끄라멘또(Nuestro Padre Santísimo Sacramento),

우리 아버지 산티시모 트리니닫(Nuestro Padre Santísimo Trinidad),

우리 아버지 산띠시모(Nuestro Padre Santísimo),

우리 아버지 산또(Nuestro Padre Santo).

우리들을 용서할 것이며, 절대로 우리들을 놀라게 아니할 것입니다.

성전, 성스러운 동굴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아베 마리아 뿌리시마(Ave María Purísima), 아베 마리아 산띠시마(Ave María Santísima). 우리들의 신이여,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소

서, 신이여.
(세 번의 피리소리)
[폭죽]

위 기도문에서는 기우제 과정, 기우제의 대상과 목적, 제물의 역할 등이 잘 드러난다. 먼저 기우제의 과정을 살펴보자. 기우제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상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루이스(Ruiz 1998: 8)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1) 피리소리 -- 비의 신, 아우아께를 부름
2) 제물 -- 원하는 좋은 시절에 대한 답례
3) 담배 -- 아우아께로부터 인간의 보호
4) 침묵과 기도 -- 우주에너지의 움직임, 존경, 공포 그리고 아우아께의 평정
5) 폭죽 -- 제의의 완료
6) 비 -- 신의 응답
7) 추수 -- 성스러운 이중의 응답

기우제에는 아우아께에 대한 두려움과 바람이 함께 한다. 물론 이 두려움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과정일 뿐이다. 이에 대한 신의 응답은 다름 아닌 '좋은 시절', 이른바 부족하지 않고 넘치지 않게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 일 것이다. 비를 향한 주민들의 바람은 제물로 나타나고, 제물들은 주민들이 바라는 비의 세계에 대한 관념들이 잘 드러난다. 다음은 제물의 일람표이다.

표 2> 기우제 제물의 일람표

구분		내용	비고
인간		남녀 인형, 천사, 군인	플라스틱
동물		구아홀로떼(guajolote), 뱀, 개구리, 거북이, 물고기	플라스틱
식료	음식	소금기 없는 몰레 베르데, 소금기 없는 따말, 에스끼떼(*esquite*, 일종의 비스켓), 하얀 까모떼(camotes blancos), 빵, 여러 모양(별, 해, 달, 뱀, 천사 등)의 뜰랄스깔(*tlaxcal*, 일종의 비스켓)	기우제 전날 마을사무소에서 직접 요리
	과일	오렌지, 사과, 바나나, 망고, 과야바, 리몬, 살구, 파인애플, 멜론	시장에서 구입
	사탕	과자와 사탕	
	음료	뿔께와 포도주	
기타		화약가루(pólvora)	
		담배	
		작은 항아리와 컵	진흙
		초	
		피리	
		나무십자가	

출처: Kim(1999: 271) 참조

위 표에 나타난 제물 일람은 1997년 동굴기우제에 바탕을 두었다. 이 제물의 내용들은 2007년 동굴기우제에서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는 제사장인 도냐 호비따가 여전히 제물 준비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우제를 지내는 동굴이 세월 따라 변해 온 것처럼, 제물의 내용과 그 제물에 담긴 의미도 변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제물의 내용은 크게 인간, 동물, 식료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제물마다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사장 도냐 호비따의 이야기이다.

> 옛날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뱀, 거북이, 모든 동물들은 비를 부르기 위한 것이다. 인형들은 바람의 신들(los aires)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몰레, 빵, 온갖 과일들은 일하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다(Huicochea 1997: 242 재인용).

다음으로는 마을사람들이 제물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기우제 과정에 맞추어 살펴보겠다.

먼저 기우제의 시작을 알리는 피리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흙으로 구운 피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구입한 어린이 장난감용 조그마한 나팔 피리이다. 사실 어른들이 나팔 피리를 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모든 소란과 재잘거림을 잠재우고 참석자들을 엄숙한 신성의 세계로 이끈다. 기우제를 시작하기 전에 피리를 불어 아우아께를 부른다. 또한 제물을 차리는 도중, 그리고 차린 후, 기우제를 마친 후에도 피리를 분다. 이처럼 피리는 아우아께를 부르고 이들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다음은 준비해 간 제물을 진설한다. 앞에서 인용한 도냐 호비따의 기도문에서 남녀인형-거북이-화약-군인-뱀 등의 순서로 진설하는 것처럼, 제물들은 분류에 따라 차례차례 제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제물을 놓는 순서나 위치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것은 제사장에 따라 다르고, 나아가 제사장도 항상 같은 순서와 위치에 제물을 놓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남녀 인형을 제사장을 마주보고 놓는 것이 보통이다. 남녀 한 쌍인 인형 또한 시장에서 구입한 어린이 장난감이다. 굳이 인형의 외모가 금발의 미녀, 미남이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형이 어린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형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희생공희를 보여준다. 또한 새해의 첫날, 이른바 설날은 오늘날의 2월 2일이었다. 이날 아스떼까 사람들은 비의 신 뜰랄록, 비의 여신 찰치우뜰리꾸에(*Chalchiuhtlicue*), 바람과 옥수수의 신 께짤꼬아뜰(*Quetzalcóatl*) 등에게 의례를 행하였다. 특히 산의 정상 등 여러 장소에서 비와 물이 풍부한 좋은 시절을 기원하며 어린이의 심장

을 바치는 희생공희를 하였다(Iglesias y Cabrera 2001: 200). 한마디로 아스떼까 사람들은 봄의 길목에서 일 년 동안 이어진 묵은 해의 세속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성스러운 시간의 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하며 새해를 열었다. 또한 아스떼까 원주민들은 "농업 의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진 행위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 또는 어른의 피를 바치는 것이었다. 이는 농업주기의 시작과 끝에서 행해졌다(Florescano 1966: 121). 이 점에 대하여 로뻬스(López 1997)는 희생의례는 비, 추수, 건강, 승리의 대가로 희생자를 공물로 바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신에게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길 바라며 자신의 삶 자체를 바쳤던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희생공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확하게 말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희생공희가 지니는 의미는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 점은 1998년 무렵 산 안드레스 마을 노인들과 나눈 다음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 아주 옛날에 '물의 눈'(ojo de agua)의 물탱크에 물이 잘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여자 어린이가 그곳의 물탱크에 빠져 죽었다. 그 후 물이 잘 나왔다.
>
> 최근에 '물의 눈'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일부 노인들은 물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 전에 죽은 여자 어린이의 짝이 될 수 있는 어린이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의 눈'의 정식 이름은 '물이 머리카락처럼 흐르는 곳'라는 뜻의 아손쫌빤뜰라인데, 주민들은 보통 '물의 눈'이라고 부른다. 이곳은 현재의 상수도가 개발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마을의 우물이었다. 위의 사례는 필자가 1998년 당시 아손쫌빤뜰라의 물탱크에 물이 잘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것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나름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이처럼 인간의 희생은 신들에게 가장 최고의 제물인 셈이다. 특히 어린이의 희생은 풍요를 상징한다. 이와 달리 산 안드레스 사람들은 어른은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한 농민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 옥수수가 바람에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경작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나쁘기 때문이다. 만약 경작지에 들어가면, 쓰러진 옥수수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옥수수가 아주 어려서 쓰러져도 그렇다.

산 안드레스 사람들은 어른들은 죄인일지라도, 어린이들은 매우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로 생각한다. 예로 떼뽀스뜰란에서는 어린이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어린이 장례식은 어른 장례식과 달리 밝고 경쾌한 음악이 연주된다. 결국 어린이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악한 어른들의 대리인이 되어 신에게 바쳐진다. 그러나 어린이는 희생제물로써만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희생된 어린이는 비의 신, 아우아께를 도와주는 보조자로 아우아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중간자, 한마디로 '어린 신'이 된다. 이 점은 도냐 호비따 전에 동굴기우제 주 제사장이었던 도냐 까시미라(Doña Casimira, 1992년 사망)의 딸이 전하는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 내 어머니는 약 30년 동안 동굴기우제 제사장을 맡았다. 그녀는 진짜로 바람 신의 존재를 믿었다. 갑자기 그녀가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렇게 6년을 앉아서 지냈다. 동굴에 갈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동굴기우제가 며칠 남겨 둔 어느 날 집에서 어린이들과 물을 꿈에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멕시코어(나우아뜰어)로 "기다려라, 내가 줄께"라고 말하였다.

도냐 까시미라는 수십 년 동안 기우제를 주관했던 아주 뛰어난 제사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어린이는 아우아께에게 좋은 시절을 기원하는 인간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아우아께를 보조하는 존재로 인간과 신의 세계를 연결한다. 제사장들은 어린이를 신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꿈에 어린이가 보이는 것을 비의 신들이 좋은 시절을 위해 제물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인형을 놓은 다음에는 제사장들은 커다란 색종이를 바닥에 깐다. 이 색종이는 제물을 싸는 색종이와 색깔이 있는 실과 더불어 무지개를 상징한다. 무지개는 또 다른 비의 상징이다. 무지개가 일어나고, 물을 가지고 있는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촛불을 켜고, 가져온 제물들은 차례차례 놓는다.

개구리, 거북이, 물고기, 뱀 등의 제물을 놓는다. 이 제물들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장난감이다. 이 제물들은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기보다는 비의 신 등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개구리, 거북이,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우아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뱀은 멕시코 최초의 인간들에게 옥수수를 가져다 둔 풍요의 신 께짤꼬아뜰을 나타낸다. 반면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칠면조(인형)만을 제외한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 말, 돼지 등과 같은 가축들은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 동물들은 비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여튼 소와 말이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 온 가축이기 때문에 정복 이전부터 내려오는 동굴기우제에 이들 가축들이 제물로 바쳐지지 않은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하여튼 산 안드레스에는 소, 말, 돼지 등은 인간이 영혼의 세계를 가는 길을 방해하는 동물로 이해한다. 예로 산 안드레스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관에 소금과 떼스끼떼(tesquite, 일종의 돌소금)를 넣는데, 이는 망자의 길을 방해하는 소, 말,

돼지 등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평소에 소, 말, 돼지에게 옥수수 대 등 먹이뿐만 아니라 소금과 떼스끼떼를 정기적으로 준다. 이런 맥락에서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소, 말, 돼지가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는 과일, 요리, 술 등을 놓는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 먹거리인 이 제물들은 또한 신들을 위한 먹거리이기도 하다. 리에바나(1580)에 따르면 마소르까를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데, 지금은 마소르까는 제물로 바치지는 않는다. 이 제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물은 소금기 없는 따말, 소금기 없는 몰레 베르데, 에스끼떼, 뜰랄스깔이다. 이 제물 대부분은 주민들의 주식인 옥수수로 만들며, 주민들이 직접 요리를 한다. 따말, 몰레 베르데, 에스끼떼, 뜰랄스깔 등 요리에 소금을 넣지 않는다. 이는 신들이 소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따말은 크기가 평소에 만드는 것보다 작은데, 이는 아우아께를 보조하는 어린이 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보통 옥수수 빵이라고 하는 따말은 멕시코 고대 사회부터 오늘날까지 일상 음식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의례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멕시코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종류의 따말이 있는데, 적게는 500여종, 많게는 5,000여종의 따말이 있다(http://es.wikipedia/tamal). 한마디로 따말에는 옥수수에 바탕을 둔 멕시코 사람들의 삶과 정신세계가 응축되어 있다고 하겠다. 몰레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는데, 오늘날 멕시코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결혼식 등 축하 성격의 축제에서는 몰레 로호(mole rojo)를 만들지만, 장례식, 사자의 날 같은 엄숙한 제의에서는 몰레 베르데를 요리한다. 특히 동굴기우제 제물로 바쳐지는 몰레 베르데에는 소금을 넣지 않는다. 그 외 주식인 옥수수로 만든 에스끼떼, 뜰라스깔이 있는데, 아우아께는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때 사용

하는 옥수수는 푸른 듯하면서 붉그스런 색깔이 있는 옥수수이다.

과자와 사탕은 가능한 단맛이 나는 것을 올리며, 이 또한 신들이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스떼까 신들의 음료인 뿔께를 올린다. 뿔께와 더불어 포도주를 바치는데, 이는 가톨릭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즉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 또한 나무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기우제 제물 가운데 빠뜨려서는 안 될 하나가 화약가루이다. 이 중요성은 다음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 올해(1997년)엔 파종을 하는 6월과 옥수수가 자라기 위해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8월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나는 동굴 의례를 할 때, 화약가루를 잃어버리고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동굴기우제에 화약가루를 제물로 바쳤다.] 왜냐하면 올해는 천둥이 없었기 때문이다. 천둥은 구름을 부수어 비가 내리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위 사람은 당시 50대 초반의 농민으로 마을에서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농민 가운데 한 명인데, 동굴기우제를 비롯한 물의 날 등의 의례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지만 1997년에 있었던 가뭄의 원인을 자연스럽게 동굴기우제에서 찾고 있다. 특히 위 사람은 동굴기우제에서 화약가루를 빠트리고 신에게 바치지 않아서 그 해에는 비를 몰고 오는 천둥·번개가 거의 없었고, 결국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처럼 폭약은 기우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제물이다. 다시 말해 폭약은 구름을 깨트리는 천둥을 상징하고 동시에 비의 신 뜰랄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뜰랄록은 천둥, 번개 그리고 폭풍우를 관장한다. 사람들은 뭉쳐있는 먹구름은 나쁜 비와 회오리바람을 몰고 온다. 따라서 화약가루로 폭죽을 만들어 터트려서 뭉쳐있는 구름들을 흩트려 좋은 비를

내리게 한다. 실제 폭풍우가 무섭게 내리치면 일부 주민들은 집에 있는 빼리꼰 십자가 또는 부활절 미사에서 축복을 받는 야자수 십자가를 태우거나, 하늘로 폭죽을 쏴 올린다. 그러면 먹구름이 흩어져 '나쁜 비'는 멈추고 '좋은 비'가 내린다고 한다. 아우아께로 제물을 바친 농민들에게 답례로 화약가루로 좋은 비를 만들어 보낸다.

V. 동굴: 기원지 그리고 풍요의 창고

로뻬스(López 1997: 214)에 따르면 메소아메리카 문화에서 "창조는 세 영역, 이른바 천상(天上), 지상(地上), 지하(地下)의 결합에서 이루어진다. 말할 필요도 없이 천상과 지하는 신들만의 땅이며, 지상은 인간과 창조된 다른 생명체들의 장소이다." 특히 지하세계는 신들의 거주지이자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풍요의 창고'(Bodega de la riqueza)이다. 우주의 한 부분인 지하세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다름 아닌 동굴이다. 스페인 정복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 동굴은 "대지의 어머니 신의 복부(vientre)"(Limón 1990: 90)이자 다양한 부족들에게 생명을 준 기원지로 상징과 의례의 대상으로서 큰 의미를 지녔다. 예로 아스떼까 제국을 세웠던 멕시까(México) 부족은 어원적으로는 '7개 동굴'이라는 의미를 지닌 치꼬모스똑(*Chicomóztoc*)을 그들의 탄생지로 간주하였다. 동굴을 탄생지로 보는 세계관은 아스떼까 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떼오띠우아깐, 마야, 믹스떼꼬 등을 비롯한 메소아메리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다. 단지 아스떼까 제국을 이룬 멕시까의 기원 동굴은 7개이며 현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선인장이 가득한 사막지대에 위치해 있다면, 떼오띠우아깐, 마야, 믹스떼꼬 등의 기원동굴은 한 개로 자신의 영토 안에 있으며 비옥

한 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Florescano 2002: 78-79).

하여튼 동굴을 기원지나 풍요의 창고지로 바라보는 인식체계는 메소아메리카의 어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나우아뜰어를 말하는 종족 가운데 하나였던 뜰라우이까 종족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떼뽀스뜰란 지역에도 여전히 전통 인식체계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 점은 산 안드레스에 전해지는 다음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 12월 31일 밤 12시에는 떼뽀스뜰란의 조상신, 떼뽀스떼까뜰이 그렸다는 벽화가 있는 오스또끼아우악에 '마법의 가게'(tienda encantada)이 열린다. 이 가게는 오로지 12초 동안에만 열리기 때문에 빨리 물건을 사서 나와야한다. 만약 그 곳에서 못나오게 되면, 일 년 동안 갇히게 된다. 상점 안에서의 1분은 현세의 일 년과 같다. 일 년이 지난 후에는 담요로 몸을 덮고 나와야하는데, 왜냐하면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죽기 때문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하시길, 아주 옛날 어느 연말 무렵에 한 마부가 이곳에 도착하였다. 말을 나무에 묶고, 아까뿔꼬(Acapulco)에서 가져온 상품들을 내려놓고, 밤을 보내기 위해 잠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 때 이 사람은 커다란 문이 열리는 것을 놀라며 바라보았다. 큰 가게였다. 그는 호기심에 들어가서 설탕을 샀다. 그가 가게 문을 나섰을 때 가게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산 설탕은 황금으로 변하였다.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다음 해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오스그 곳으로 와서 가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지만, 가게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너무도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법의 가게가 열리는 오스또끼아우악은 동굴기우제가 벌어지는 한 동굴이다. 주민들은 이곳을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모렐로스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부를 상징했던 사탕수수, 이른바 설탕과 같은 보물이 저장되어 있는 바로 '풍요의 창고'로 여긴다. 동굴을 풍요의 창고로 상징화하는 전

통적 인식체계는 오늘날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단지 식민지 경제에서 부의 상징인 설탕이 창고의 한 품목으로 더해졌을 뿐이다.

옥수수 농사가 중심이었던 시기에서 동굴에 보관된 가장 중요한 보물은 다름 아니라 씨앗, 비와 같은 농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결국 전통 인식체계에서 동굴 나아가 동굴이 위치한 산과 언덕은 농업과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동굴과 농사의 밀접한 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도냐 까시미라의 딸이 전하는 다음의 언설에서 잘 드러난다.

> 오월 한 금요일이면 도냐 까시미라(Doña Casimira)는 소치오깐 동굴에 들어갔다. 목욕제배하고 꼬빨 향로로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단식을 하였다. 그런 뒤 그녀만이 아는 제물과 새 바구니를 가지고 홀로 소치오깐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아침 8시 경에 들어가서는 오후 3시쯤 되어서 나왔다. 바구니에는 호박, 엘로떼(여린 알이 꽉 찬 상태의 옥수수), 콩 그리고 주요 농작물이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말하였다. "농부들이여, 우리들이 바친 공물에 비의 신들이 매우 만족해 있어, 곧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니 믿음을 갖고 씨를 뿌리세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우박(granizo)도, 가뭄(sequía)도 그리고 세찬 비바람(aguaviento)도 없을 것이고, 비는 부족함이 없이 올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동굴은 지하세계로 연결되고, 대화할 수 있는 문지방(umbral)이다. 무엇보다 동굴은 지하세계에 있는 힘들이 발산하는 통로로 농사의 필수품인 씨앗, 그리고 이 씨앗에 생명력을 주는 비를 가져오는 바람과 구름이 나오는 출구이다. 농사철이 가까워질 무렵 농민들은 "이 보물들이 대지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사"하고 비의 신 아우아께가 거주하는 동굴에 제를 올린다.

동굴 기우제는 신들과의 대화의 수단이며, 이 세상과 초자연의 세계와의 필수불가결한 연결고리이다. 게다가 로뻬스가 지적한 것처럼(1997: 211), "인간과 신 영역의 차별성을 인정한다면, 기우제는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들은 인간들의 이런 제물에 대한 답례로 커다란 무엇인가를 주어야한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우아께가 내리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시절', 이른바 풍년일 것이다. 기우제에 대한 아우아께의 응답은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과 비를 내린다. 식물의 생을 부활하는 동굴의 창조행위는 여러 동굴들의 조화에 의해 이뤄진다. 여기에는 원주민의 자연관이 내재되어 있다. 이 점은 다음의 사례(Ruiz & Grigsby, s/p: 6, 김세건 2000: 141 재인용)에서 잘 드러난다.

> 지하의 강으로부터 솟아난 증기(구름)는 남쪽의 동굴들을 통해 발산된다. 바람에 실려 북쪽과 서쪽으로 실려 간 구름은 비로 변하여 들판과 북쪽 산들의 정상에 내린다. 그 곳에서 개천이 되어 흘러내리고, 또한 샘들의 물도 간헐(間歇) 천으로 흘러, 땅의 배꼽에 이르러, 꾸이뜰라삘꼬(*Cuitlapilco*) 동굴을 통해 지하세계로 들어간다. 동굴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들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남쪽과 북쪽의 동굴에 대한 상징구조를 통해 우주를 창조한다. 먼저 북쪽 방향은 탄생와 창조의 공간으로 위치지워진다. 이 방향의 동굴들이 자리 잡고 있는 찰치우이떼뻬뜰(*Chalchihuitepetl*)은 "보물 또는 옥(jade)의 산"이라는 뜻인데, 전통적 상징체계에서 옥은 물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Ruiz y Grigsby, s/p:6). 이 산에는 소치오깐, 아손쫌빤뜰라 그리고 소치뗀꼬와 같은 기우제가 벌어지는 동굴과 주민들의 생명줄인 샘이 위치해 있다. 이 동굴들이 지닌 의미는 산 안드레스 마을의

신화에서 잘 드러난다.

> 원래 산 안드레스는 현재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소치오깐(*Xochiócan*)에 위치하였다. 떼오빤솔꼬(Teopanzolco)에 갔다가 돌아오던 떼뽀스뜰란의 시조신(始祖神) 떼뽀스떼까뜰은 배가 고파 산 안드레스 마을에 들렀다. 마침 한 여인이 또르띠야를 만들고자 옥수수를 빻고 있었다. 떼뽀스떼까뜰은 그 여인에게 또르띠야를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여인은 또르띠야를 건네주면서 소금 대신 자신의 겨드랑이 땀을 묻혀서 주었다. 화가 난 떼뽀스떼까뜰은 여인으로부터 메뜰라뻴(metlapil, 옥수수를 빻은 작은 돌절구)을 빼앗아 마을의 샘물 입구를 막아버렸다. 이후 샘물이 말라 산 안드레스 주민들은 물을 찾아 현재의 위치인 아손쫌빤뜰라 방향으로 이동해야 했다.

찰치우이떼뻬뜰산에 있는 소치오깐, 소치뗀꼬 등과 같은 동굴들과 샘들은 구름이 비로 변하여 발산되는 통로로 상징화된다. 이 점은 소치오깐, 소치뗀꼬 이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소치뜰(Xochitl), 즉 '꽃'은 메소아메리카의 전통적 상징체계에서 자궁과 기원을 나타낸다. 특히 소치오깐 지역은 산 안드레스의 주민들이 처음으로 거주하기 시작했던 곳이고, 떼뽀스뜰란 조상신 떼뽀스떼까뜰이 내린 벌로 샘물을 잃어버리고 소치오깐을 떠났던 주민들에게 새로이 물, 즉 생명을 준 곳이 아손쫌빤뜰라와 소치뗀꼬이다. 현실적으로 비를 실어오는 바람은 북쪽에서 오며, 상징체계에서도 이 방향에 창조와 탄생과 관련된 동굴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마을 사람들은 남쪽 동굴을 죽음과 연관시킨다. 남쪽과 죽음을 관련시키는 이 믿음체계는 한 농민이 들려주는 이야기(김세건 2000: 142)에서도 보여진다.

> 혁명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농사가 꽤 잘되었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몰려들어 피해가 심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들은 어린아이들에 하얀 옷을 잘 차려 입히고, 그들과 함께–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순수한데, 어른들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풍악을 울리고 폭죽을 쏘며 호야(Joya, 마을의 최남단 지역의 이름)쪽으로 갔다. 결국 메뚜기 떼는 출구인 호야쪽으로 사라졌다.

기우제를 지내는 제일 남쪽에 위치한 떼뻬뿔꼬 동굴은 지하세계로 통하는 지름길로 여긴다. 비는 우기 동안 동식물에 생명을 준 후 땅의 배꼽을 통해 지하세계로 귀환하고, 새로운 농사철이 되돌아오면 남쪽 동굴을 통해 수증기를 함유한 구름으로 다시 발산이 된다. 이 구름은 북쪽 동굴에서 발산되는 기운과 만나 비가 되어 대지에 내린다. '구름이 뭉쳐 있는 장소'라는 뜻의 떼뻬뿔꼬 동굴은 단순히 죽음의 세계인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비의 창조는 북쪽과 남쪽 동굴들 사이의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지하세계의 죽음과 혼돈으로부터 생명과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남쪽과 북쪽 동굴에 대한 인식체계에서 삶과 죽음의 관계는 매우 순환적이고 조화롭다는 원주민의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다. 창조행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동굴에서 나온 생명력과 비는 다시 동굴을 통해 지하세계로 되돌아가야 한다. 동굴로의 회귀는 뻬리꼰 십자가와 엘로떼의 날과 물의 날 의례를 통해 이루어진다.

옥수수의 알곡이 가득 차 있는 9월 28일 무렵 농민들은 바람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자 노란색 야생화 뻬리꼰으로 만든 십자가를 옥수수 밭의 네 귀퉁이에 세우는 것이다. 십자가는 들판에 떠도는 나쁜 바람으로부터 옥수수 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십자가를 세운 뒤 사람들은 처음으로 엘로떼를 따며 '의례적 수확'을 한다. 마을 노인들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첫 의례적 수확을 하는 뻬리꼰 십자가의 날

이 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밭에 있는 엘로떼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수확한 엘로떼를 주변에서 모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구워 먹는다. 불로 옥수수를 굽는 행위는 이제 생명력을 얻는 씨앗들이 다시 동굴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보물과 생명력의 회귀는 루까스(Lucas) 성인 축일인 10월 18일은 물의 날 의례로 이어져 사자의 날에 마무리된다.

마을 사람들은 '물의 눈', 아손쫌빤뜰라에서 좋은 시절과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물의 날'의 오후 무렵 산 안드레스 성당에서 폭죽과 종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성당으로 모여 아손쫌빤뜰라로 향한다. 예전에는 음악대가 함께 갔다고 한다. 몇몇 사람들은 장작, 솥 등을 가져간다.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가 진행되는 한쪽에서는 솥에 연한 마소르까를 넣어 물을 붓고 장작불에 삶는다. 엘로떼의 날에는 옥수수를 불에 직접 구워먹었다면, 물의 날에는 옥수수를 물에 삶아 먹는다. 불에 의해 물이 증기로 변하여 점차 자신의 근원지인 동굴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 우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지하세계에 파종된 옥수수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나 성장하고 재생산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힘은 다음 철까지 휴식을 취하고자 엘로떼의 날, 물의 날 등과 같은 의례를 통해 그들의 보금자리인 동굴, 이른바 지하세계로 돌아간다.

Ⅵ. 나가며

동굴기우제는 산 안드레스에서 행해지는 가장 오래된 생산의례이다. 동굴기우제는 생산의례를 넘어 스페인 정복 전 이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메소아메리카 문화의 보고(寶庫)이다. 메소아메리카 문화에 따르면,

천상, 지상, 천하로 나뉜 우주에서 지하세계는 신들의 거주지이자 삶과 죽음을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창고이다. 산 안드레스 농민들에게 있어서 지하세계에 보관된 가장 중요한 보물은 다름 아니라 씨앗, 비와 같은 농사를 위한 필수품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무렵에 좋은 시절의 비를 청하고자 동굴에 기우제를 지낸다. 이 동굴 기우제는 식민지시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옥수수를 생산하며 살아 온 산 안드레스 주민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해왔다. 물론 동굴기우제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아메리카 문화, 특히 자연관은 가톨릭 종교와 결합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한마디로 모든 생산의례는 가톨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점차 모든 전통의 신을 대신하여 가톨릭의 신과 성인들이 의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예로 동굴기우제의 대상도 바람과 비의 신 뜰랄록, 아우아께, 께짤꼬아뜰보다는 '성스러운 구원자 예수'로 상징화되었다. 가톨릭의 도입과 강요는 점진적으로 조화로운 관계에 바탕을 둔 이원성에 대한 사고에서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좋고 나쁜 동굴의 조화로 비가 내리고, 건기와 우기의 순환 속에서 옥수수가 재생하듯이 전통적 인식체계에서 "두 개의 상반된 존재, 이른바 신과 악마는 각자 독립적인 하나의 존재로 수렴되었다. 예로 악마, 나쁜 것은 하나의 신성(deidad) 속에서만 정체성을 획득했던 것이다"(Nuño 1996: 59). 즉 모든 자연 현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신성과 함께 유지되었던 호혜적 관계는 가톨릭의 강요 속에서 신과 악마라는 이분적 구조, 이른바 이원(二元) 대립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농촌 근대화를 겪으면서 동굴기우제는 그 어떤 것보다 커다란 소멸 위기에 있었다. 오늘날 동굴에서 비를 기원한다는 것 자체가 웃을 일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굴의) 의미도, 아니 이름조차도 모른 채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감상적으로 제의에 참여한

다"라는 제사장 펠리뻬의 말처럼 오늘날 동굴은 그냥 동굴일 뿐이고, "신화 없는 의례"(rito sin mitos)(García, 1990)만이 생산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주민들은 부지불식간에 가뭄, 나쁜 결실 등의 현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동굴기우제와 연관시키며 전통적 세계관을 오늘날까지 유지해왔다. 여전히 동굴은 우주 에너지의 창조자이다.

Ⅶ. 참고문헌

김세건(2000),「멕시코 한 농촌의 농업의례와 인식체계의 변화: 이원성과 "우리들은 문명인"」, 한국문화인류학, Vol. 33, No. 1, pp. 117~160.

del Amo, Silvia(1988), *Cuatro estudios sobre sistemas tradicionales*, México: INI.

Figueroa, Alejandro(1996), "Los yaquis, tradición cultural y ecología", in Luisa Paré & Martha Sánchez (coords.), *El ropaje de la tierra*, México: UNAM/Plaza y Valdés, pp. 17-28.

Florescano, Enrique(1996), *El mito de Quetzalcoatl,*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Florescano, Enrique(2002), Historia de las historias de la nación mexicana, México: Taurus.

García Canclini, Néster(1990),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México: Grijalbo.

Huicochea, Liliana(1997), "Yeyecatl-Yeyecame: petición de lluvia en San Andrés de la Cal", in B. Albores & J. Broda (coords.), *Graniceros: cosmovisión y meteorología indígena de Mesoamérica*, México: Cologio Mexiquense/UNAM, pp. 233-254.

Iglesias y Cabrera, Sonia C.(2001), *Navidades mexicanas*, México: Conaculta.

Kim Lim, SeGun(1999), *El cambio, sus características y el ecosistema en un pueblo campesino mexicano*, la tesis de doctorado en antropología, UNAM.

Limón, Silvia(1990), *Las cuevas y el mito de origen*, México: CNCA.

López Austin, Alfredo(1994), *Tamoanchan y Tlalocan*,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López Austin, Alfredo(1996), "La parte femenima del cosmos", *Arqueología Mexicana*, Vol. 5, No. 29, pp. 6-13.

López Austin, Alfredo(1997), "Ofrenda y comunicación en la tradición religiosa mesoamericana" in X. Noguez & A. López (coords.), *De hombres y dioses*, México: Colegio de Michoacán y Colegio Mexiquense, pp. 209-227.

Maldonado, Druzo(1990), *Cuaunáhuac y Huaxtepec (tlahuicas y xochimilcas en el Morelos prehispánico)*, Cuernavaca, Morelos: CRIM-UNAM.

Nuño, Gutiérrez, María(1996), "La relación naturaleza-cultura en una comunidad Purépecha a través de sus expresiones orales", in Luisa Paré & Martha Sánchez (coords.), *El ropaje de la tierra*, México: UNAM/Plaza y Valdés, pp. 29-82.

Nolasco Curiel, Cynthia(2008), "Diagnostico de salud, Año 2007", Servicios de Salud de Morelos.

Redfield, Robert(1930), *Tepoztlán, a Mexican Vill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uiz, César(1998), "Ofrenda y cosmovisión significado de las ofrendas del ritual de petición de lluvia en San Andrés de la Cal", 심포지움 *El*

*Norte del estado de Morelos ¿Una Región?*의 발표문, Cuernavaca: CRIM-UNAM/Centro-INAH Morelos.

Ruiz, César & Thomas Grigsby, *Culto ofrenda y cosmovisión en San Andrés de la Cal,* 미발표초고.

Sahlins, Marshall(1990), *Uso y abuso de la biología: una crítica antropológica de la sociobiología*, México: Siglo XXI.

▌논문투고일자: 2009년 10월 28일
▌심사완료일자: 2009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15일